

한국 중학교 교과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and craft design
in Korean Junior high Art textbook

주저자 : 이부연(Lee, boo yeon)

한양대학교 응용미술학과



Abstract

1. 서론

2. 중학교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의 필요성

3. 한국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의 역사

4.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미술교육의 내용

5. 한국 중학교 교과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내용 분석

6. 결론

한국의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은 1956년 미국의 Peobody 교육사절단의 미술과 공예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현대적인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다. 중학교 교과서의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을 살펴보면 각 학년별 미술과 교과서에서 중학교 1,2학년 교과서보다 3학년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의 비율을 많이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학교 교과서에서 순수미술을 다루고 있는 비율이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을 다루고 있는 비율보다 높은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교과서의 집필자의 전공이 교과서의 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전공자들의 학교 교육에 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 교과서에서 중학생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는 첨단 미술의 분야가 거의 다루지고 있지 않은 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미술교과서가 중학생들의 생활과 많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 해당하는 영상교재가 개발되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디자인 및 공예디자인교육은 한국의 국가적 경제발전을 위하여 더욱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실감있는 교육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부단한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Peobody educational support in 1956 from America influenced a lot to start modern Korean design and craft design education. In Korean Junior high Art textbook, in 3rd grade art textbook in junior high school they deal with design and craft design the most comparing to other grades. In most of the Korean Junior high Art text book, the percentage of fine Art is more than the percentage of design and craft design. This is come from the fact that most of the writers' majors of Korean Junior high school Art textbook are fine art. Korean designers and craft designers need to take attentions more of writing Art text book in Korean Junior high school. In

Korean Junior high school Art textbook, We hardly find the high technique art which Junior high students are accustomed to and enjoy in their present daily lives. Developing high technique art text book materials for student is necessary. Design and craft design should be dealt with in Korean junior high school Art text book more seriously and developed not only for students' rapidly changing lives, but also for Korea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keyword)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

1.

1-1.

한국 중학교 미술과 교육은 교수요목 시기(1946~1954)부터 한국의 현대적 교육이 일반 학교에서 시작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공통적이며 일반적인 기준이 설정 되었다. 현재 까지 제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제 7차 교육과정이 이어져오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교과서가 개편되어 활용되고 있다. 미술교과에서 교과서가 활용되는 것은 문화적 혜택을 받는 도심지역 뿐 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는데 교육적 효과가 지대하다고 볼 수 있어 그 내용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의 영향력은 중학생 교육에 있어 가장 큰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은 부단히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과 산업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중학교의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에 관해 고찰해 봄으로서 앞으로 중학교 교과서의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의 나아갈 바를 가름하고 중학교 미술과 지도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1-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논문에서는 한국 중학교 교과서의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을 연구하기위해서 이론적 배경으로 중학교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의 필요성을 연구하고

한국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의 역사를 고찰하며 제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분석하고 한국중학교 교과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내용을 분석함으로 한국중학교 교과서의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한국 중학교 교과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중학교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의 필요성

교육에 있어 특히 청소년기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발달 속도가 빠른 시기의 교육이므로 이 시기의 교육은 학생의 전 생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학생이 사춘기에 이르는 시기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변화되는 시기이며 아동의 사고에서 성인의 사고로 변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Victor Lowenfeld는 미술교육에 있어 디자인교육은 의사실기(11세~13세)부터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는 아동이 비판적 시각을 갖을 수 있는 나이로 객관성있는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연령이다. 미술교육의 목적을 크게 세가지로 볼 때 '미적 성장을 위한 미술교육', '학생의 발달을 위한 미술교육',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미술교육'으로 볼 수 있다. '미적 성장을 위한 미술교육'은 예를 들어 학생의 디자인교육을 통해 학생의 미감을 발달시키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또한 중학교 수준에 있어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은 '학생의 발달을 위한 미술교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전인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교육이 될 것이다.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미술교육'은 사회의 특별한 요구를 위해 미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일컫는다. 중학교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교육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으로서의 의미와 비중이 지대하다.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이란 그 시대의 요구에 필요한 미술교육을 실시함을 말한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경제적 도약이 요구될 때 미술교육을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크게 활용한 바 있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 1749년 국가를 위해 미술교육을 일반 학교에서 교육할 것을 주장하여 초기 미국의 미술교육에 이바지 했을 뿐 아니라 미술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의 실 예를 보여주었다. Benjamin Franklin은 미술은 실용성이나 실물적 가치를 갖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는 미술교육은 예쁜 그림을 그리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William Bently Fowel은 학생들의 미술교육을 모니터교육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William Minifie는 미술교육도 과학교육과 같이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기하학적 그림'이라는 교과서를 출판했다. Horace Mann은 미술을 실용적인 것으로 규정지었다. Walter Smith는 미술을 산업을 위해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Massachusetts주가 최초로 미술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삼입하도록 하였다. 한국의 미술교육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미술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있다고 보겠다. 한국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 "학생의 발달을 위한 미술교육, '미적 성장을 위한 미술교육',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미술교육' 모두 균형있는 연구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특히 국가적 차원의 한국의 경제적 도약이 이루어져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나아가 선진의 대열에 서기 위한 노력이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미술교육'에 보다 많은 연구와 비중이 있어야 하겠으며 가장 교육의 효과가 지대한 중학교 수준에서 그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3. 및 공예 디자인 교육의 역사

한국의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은 조선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의 성균관이 최초의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교육의 장이었다고 본다. 이 시대에 습자나 그림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조선시대의 도화서가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교육의 산실이 되었다. 왕실용 그림, 초상제작, 왕실 행사 기록그림을 관장했다.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근대적 의미로서의 미술교육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습자와 도화교육이 실시되었다. 1906년 보통학교령이 공포되었으며 고등과에서 습자와 도화가 교과과정에 삽입되었다. 1992년 제 2차 교육령의 개정에 의해 도화가 필수과목이 되었다. 1938년 제 3차

교육령 발표 후 사상화, 도안화, 사생화, 임화, 용기화를 지도했으며 관찰력, 표현력 신장에 중점을 둔 미술교육이 실시되었다. 1943년 제 4차 교육령 발표 후 전 시체제하의 디자인 및 공예 디자인 교육으로 생산적이고 실리적인 만들기와 모형항공기 제작, 기계조작등 공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교육이 실시되었다. 1945~1948년 미 군정하의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교육은 존듀이(J.Dewey)의 영향을 받았다. 1950~1953년의 전 시 기간 동안 고등학교의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은 일인일기 교육으로 대체되었다. 이 시기에는 미국교육사절단의 내한으로 생활중심의 교육이 강조되었으며 1956년 내한한 미국 Peabody교육사절단은 미술과 공예활동을 펼쳤으며 이 활동의 중심에는 Don Sudlow라는 인물이 있었다. 실용중심의 목공예, 흙공예 죽공예등을 활성화 시켰다. 제 1차 교육과정(1955~1963)에서 미술과의 일반목표는 '일상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조형예술과 기술에 대하여 일반적인 이해와 기초적인 기능을 얻어 생활을 명랑하고 여유있게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개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평화적이며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중학교의 미술과 내용체계는 '표현', '이해', '기능'으로 나누었으며 '표현'의 경우 '묘사', '의상', '배치배합', '공작', '기타공작', '제도', '서예', '감상'으로 구성하였다. 제 2차 교육과정(1963~1973)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구상 및 표현, 감상과 관련된 제가지 목표 아래 중학교는 '회화', '조소', '디자인', '공작', '도법', '서예', '감상'으로 나누었다. 제 3차 교육과정(1973~1981)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정서 및 교양, 표현, 감상과 관련한 네가지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중학교의 내용체계는 '회화', '조소', '구성', '디자인', '공예', '서예', '감상'으로 구성하였다. 제 4차 교육과정(1981~1987)에서 '조형의 기초적인 표현 및 감상활동을 통해 미적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품위있는 인격을 함양하고 우리의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며 애호하는 능력과 태도를 지니게 한다'는 총괄목표를 두고 두 개의 하위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내용체계는 '회화', '조소', '디자인', '서예', '감상'으로 구성하였다. 제 5차 교육과정(1987~1992)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조형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길러 창조성을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하게 한다.'는 총괄목표를 제시하고 두 개의 하위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학교의 내용체계는 '표현', '과' '감상'의

두 개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표현’에는 ‘관찰표현’, ‘구상표현’, ‘디자인표현’, ‘서예표현’으로 구성하였다. 제 6차 교육과정(1992~1997)에서 중학교는 초등학교의 내용 체계와 유사한 ‘미술과 생활’, ‘보고 나타내기’, ‘느낌과 상상 나타내기’, ‘꾸미기와 만들기’, ‘붓글씨로 나타내기’, ‘작품감상’으로 구성되었다.

4. 7차 교육과정 중학교 미술교육의 내용

제 7차 교육과정은 1997년에 제정되었다.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 적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학습,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등의 교육 방침이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 급별 미술교과 내용의 계열성, 위계성, 통합성을 고려하며 미술 교과의 학습 내용을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교육과정 편제상의 수업 시수에 적절히 조정하는데 특징을 두었다.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미술과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생활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느낄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를 풍부하게 해주며 미술을 생활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둘째, 동기 유발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를 북돋워주고 주제, 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재료와 용구 등에 관한 체계적인 탐색활동과 능동적인 표현 활동을 통해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미술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이나 판단을 존중하고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지게 하며 전통 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 미술문화 창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학교 미술과 교육의 총괄목표로는 “ 미술과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이며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문화 유산을 존중할 수 있다.”로 기술된다. 그 내용으로는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술과 생활, 회화, 조소, 디자인, 서예, 감상의 6개 영역으로 나누어 미술의 장르별로 내용을 기술한 반면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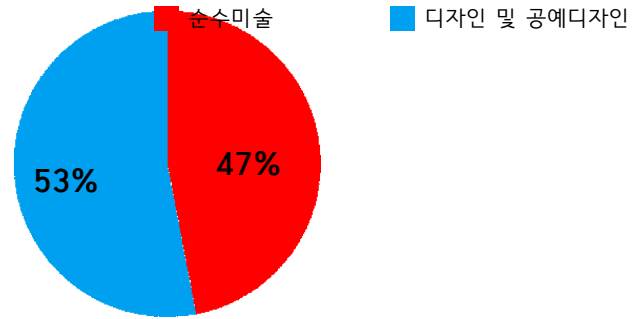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 학습 요소별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술의 각 장르별 구분이 모호해지고 새로운 장르 즉 설치미술, 행위미술, 영상미술등의 미술이 끊임없이 대두됨에 따라 장르의 구분 자체가 중요시되지 않는 현대 미술의 흐름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초 중고등학교 모두 같은 내용 체계로 제시되었다. 학습량에 있어 적정화와 구조화를 도모하여 현장에서 보다 융통성있게 학습지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영역별로 각 내용에서 성취해야할 능력을 제시하고 그 하부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미적체험 영역에서 미술의 문화적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토론을 통하여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표현영역에서 조형요소와 원리의 이해를 통한 창의적 활용을 도모하고 감상영역에서 미술품의 표현 특징을 분석하고 해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비평적 감상을 강조하였다. 교수 학습 방법에서 7개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다양한 매체(멀티미디어 등)를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적 체험’과 ‘감상영역’에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여 미적 안목을 기르고 학습효과를 높이도록 강조하고 있다. 둘째, 표현활동을 계획할 때 환경문제를 고려할 것과 활동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셋째,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세 영역간에 연계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평가에 있어 과정평가를 중시하며 평가방법에 있어 관찰법, 감상법, 토론법, 포트폴리오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실기평가 비율의 자율성을 고려하였으며 학생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할 것을 제시하였다. ‘감상’에서 분석력, 판단력, 발표력등을 평가에 포함시켰다.

5. 한국 중학교 교과서 디자인 및 공예 디자인 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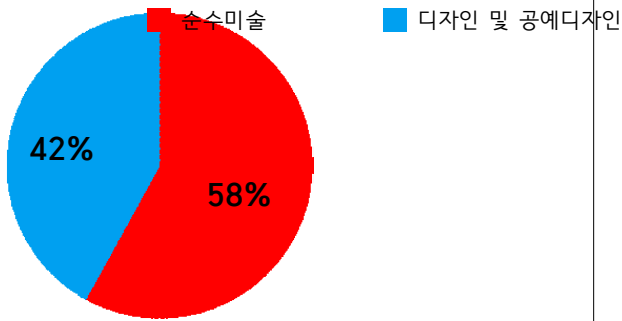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 의해 구성된 중학교 미술과 교과서는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었다. 중학교 미술과 교과서의 활용은 대단원에서 제시된 다양한 소단원의 내용을 교육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교사가 재구성하여 교수 학습을 계획하

도록 하며 다른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제시된 내용을 축으로 교과내의 영역별 통합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계절 지역, 행사등을 고려하여 교과서를 활용하도록 하며 인지적 갈등, 호기심등이 유발되도록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며 교과서의 지문과 작품 중심으로 토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보여주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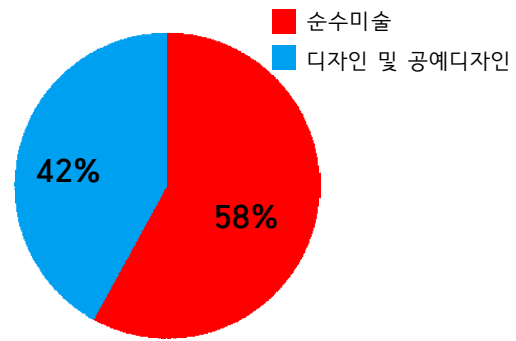
이러한 취지아래 집필된 중학교 미술과 교과서에 있어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의 비중을 분석해 보았다. 중학교 미술과 교과서의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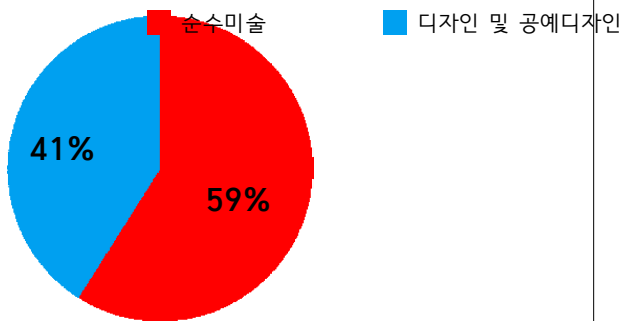
<그림3> 미술과 교과서 분석 대한교과서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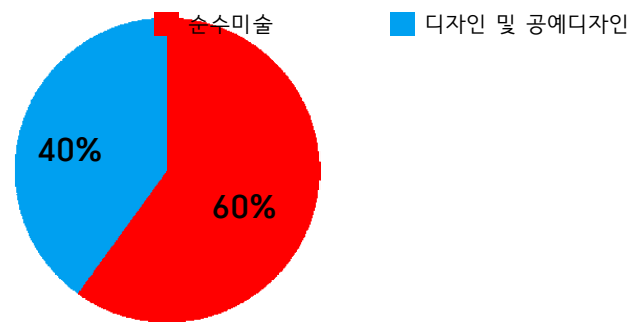
<그림1> 미술과 교과서 분석 대한교과서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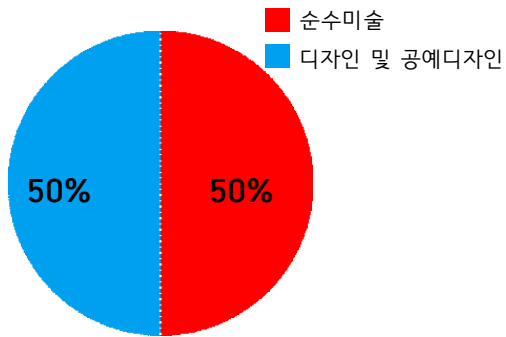
<그림4> 미술과 교과서 분석 지학사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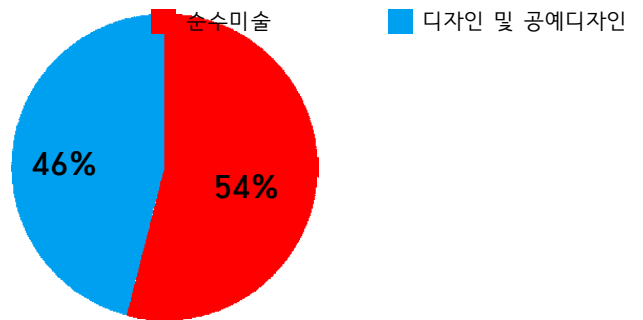
<그림2> 미술과 교과서 분석 대한교과서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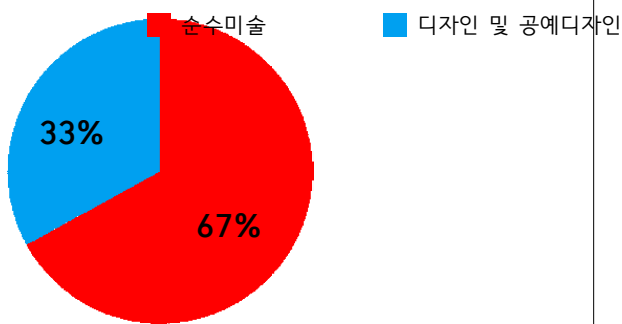
<그림5> 미술과 교과서 분석 지학사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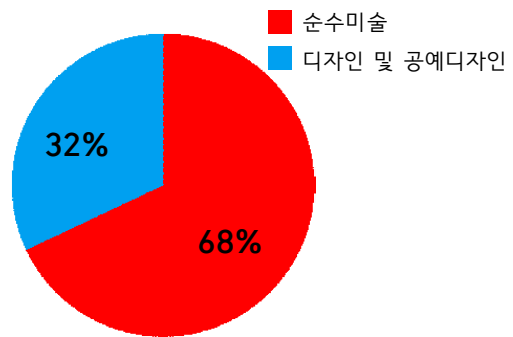
<그림6> 미술과 교과서 분석 지학사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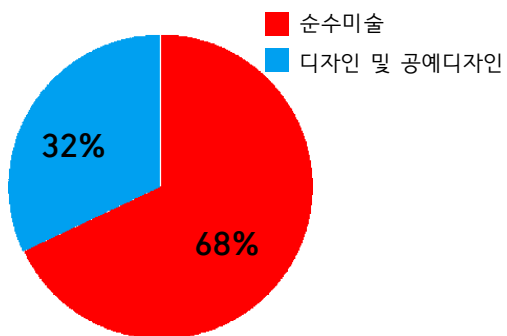
<그림9> 미술과 교과서 분석 교학연구사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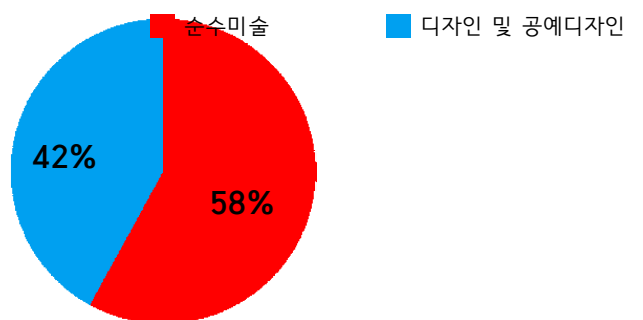
<그림7> 미술과 교과서 분석 교학연구사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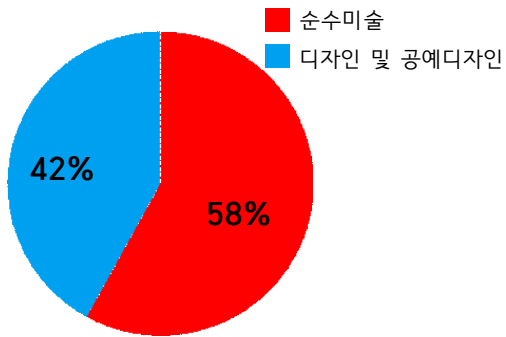
<그림10> 미술과 교과서 분석 두산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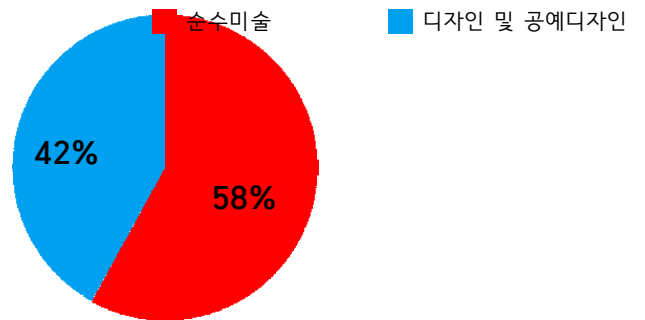
<그림8> 미술과 교과서 분석 교학연구사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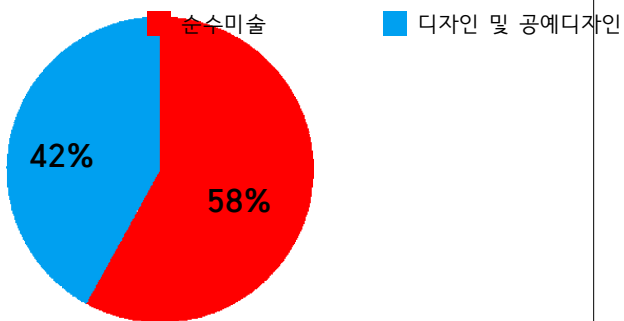
<그림11> 미술과 교과서 분석 두산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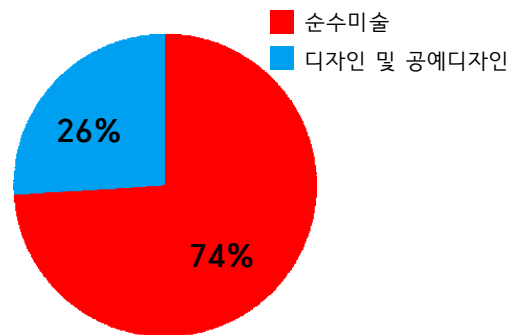
<그림12> 미술과 교과서 분석 두산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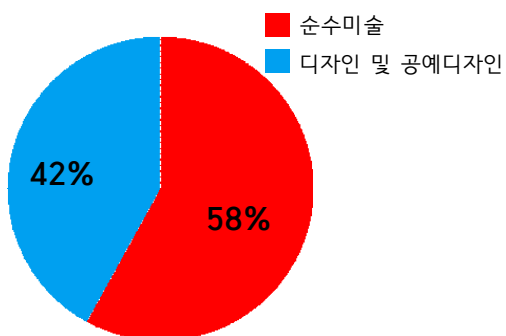
<그림15> 미술과 교과서 분석 중앙교육진흥연구소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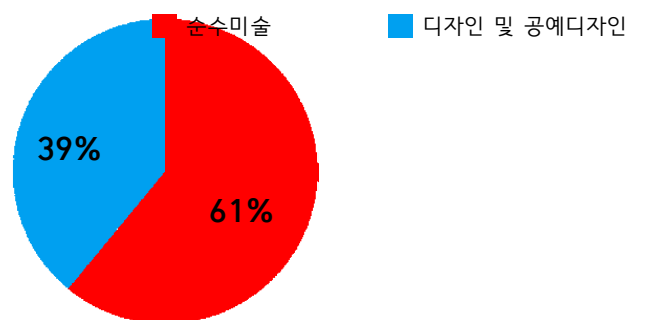
<그림13> 미술과 교과서 분석 중앙교육진흥연구소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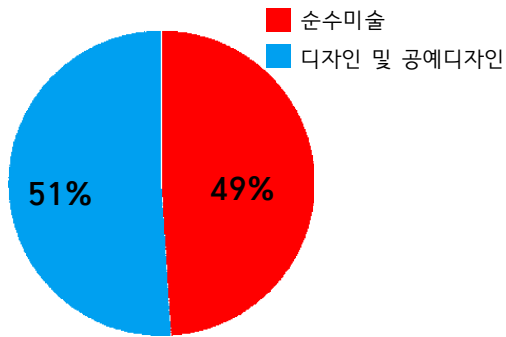
<그림16> 미술과 교과서 분석 삶과꿈 1학년



<그림14> 미술과 교과서 분석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학년



<그림17> 미술과 교과서 분석 삶과꿈 2학년



<그림18> 미술과 교과서 분석 삶과꿈 3학년

대한교과서 중학교 1학년 미술과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의 비율<그림1>이 42%로 나타났으며 대한교과서 중학교 2학년 미술과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의 비율이<그림 2> 41%, 중학교 3학년 미술과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의 비율이<그림3> 47%로 나타났다. 지학사 중학교 1학년 미술과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의 비율<그림 4>이 42%, 지학사 중학교 2학년 미술과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의 비율<그림5>이 40%, 지학사 중학교 3학년 미술과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의 비율<그림6>이 50%로 나타났다. 교학연구사 중학교 1학년 미술과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의 비율<그림7>33%로 나타났으며 교학연구사 중학교 2학년 미술과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의 비율<그림8>이 32%, 교학연구사 중학교 3학년 미술과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의 비율<그림9>이 46%로 나타났다. 두산 중학교 1학년 미술과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의 비율<그림10>37%로 나타났으며 두산중학교 2학년 미술과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의 비율<그림11>이 42%로 나타났고 두산중학교 3학년 미술과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의 비율<그림12>이 42%로 나타났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중학교 1학년 미술과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비율<그림13>이 42%로 나타났으며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중학교 2학년 미술과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비율<그림14>이 42%로 나타났고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중학교 3학년 미술과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비율<그림15>이 42%로 나타났다. 삶과 꿈 중학교 1학년 미술과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비율<그림16>이 26%로 나타났으며 삶과 꿈 중학교 2학년 미술과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비율<그림17>이 39%로 나타났다. 삶과 꿈 중학교 3학년 미술과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비율<그림18>이 51%로 나타났다. 교학사 중학교 1학년 미술과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비율<그림19>이 23%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학사 중학교 2학년 미술과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비율<그림20>이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학사 중학교 3학년 미술과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비율<그림21>이 35%로 조사되었다. 위의 그림에서 보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의 비중을 순수미술의 비중보다 약하게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둔 교과서는 대한교과서 중학교 3학년 교과서이며(53%)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있는 교과서는 삶과 꿈 중학교 3학년 교과서(51%)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미술과 교과서에서 저학년 보다 중학교 3학년의 미술과 교과서에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의 비율을 높이 책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고학년이 중학교 3학년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론

한국의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은 1956년 미국의 Peobody교육 사절단의 미술과 공예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현대적인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교육이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술 교과 내용은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미적 체험에서 필수 학습 요소로서 미술과 생활의 관계이해를 두고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생활에서 미술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생활에서 활용되고있는 조형물의 특징을 파악한다. 생활에서 미술의 역할에 관하여 토론한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표현영역에서 필수학습 요소로서 주제

표현을 두고있으며 그 내용 중 “시각전달과 환경에 필요한 것 생활용품을 나타낸다”를 제시하고 있다. 조형 요소와 원리로서 “자형, 문자의 크기, 배자, 도법등을 익혀서 쓰거나 새긴다”의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중학교 교과서의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을 분석하면 각 학년별 미술과 교과서에서 중학교 1, 2학년 교과서보다 3학년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의 비율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학생의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을 다루는 능력을 감안한 집필자의 집필 의도를 볼 수 있으며 학생의 미술표현의 성숙도를 감안한 교육 내용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학교 1학년 대한교과서 중학교 3학년 미술과 교과서에서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교육을 가장 많은 비율로 (53%)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반면 교학사 중학교 2학년 미술과 교과서에서 가장 적은 비율(20%)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학교 교과서의 집필자의 전공이 교과서의 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교과서 집필진의 전공이 디자인이나 공예디자인 보다 순수미술을 전공한 분들이나 혹은 교사들로 구성되어있어 디자인 및 공예 디자인의 심도있는 연구에 관심이 적거나 혹은 전문성이 적은 것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 교과서 집필진에 보다 많은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전공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7차 교육과정의 의한 교과서 집필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의 내용이 묘사기술 위주의 범주에 머물러 있는 점을 볼 수 있어 보다 학생들의 참여와 학생중심의 교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겠다. 중등교과서의 검인정이란 한계와 규정에 물려 획일적인 점을 볼 수 있었으며 외국작가의 작품 예시의 경우 다른 교과서에도 중복되어 제시된점등을 볼 수 있었다. 학생이 만들지 않은 학생작품의 제시 등도 볼 수 있었다. 한국의 전통적 디자인이나 공예디자인을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다룸으로 자칫 중요한 과제를 다룸에 있어 체계적이지 못한 안이한 저작자의 자세로 집필되었을 때 그 발전을 저해하거나 지역미술과 향토적인 것은 세련되지 못한 미술 혹은 촌스러운 미술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며 지역미술과 향토미술은 각 지방에서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 되어야 할 중요한 한국미술의 과제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의 내용에 있어 각

분야의 전문사의 자문과 조언이 필수요선이 되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고 판단된다. 특히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에서 중학생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는 첨단 미술의 분야가 거의 다뤄지고 있지 않은 것은 현재 사용되고있는 미술교과서가 중학생들의 생활과 많은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현재의 한국 중학생들의 적성과 생활에 부합되는 교과서의 내용을 첨가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을 위한 미술교과서 외에 영상교재가 개발되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 중학교 디자인 및 공예디자인 교육은 한국의 국가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 더욱 일반 학교의 수업에 도입되고 보편화되도록 연구 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미술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갖으며 더욱 다양한 방향으로 한국의 중학생들의 실생활과 연결되어 현실감 있는 교육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부단한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고승혜외, 두산(주), 2003, 서울
- 2) 김기숙외, 대한 교과서(주), 2003, 서울
- 3) 김정외저, 미술교육학 원론, 예경, 1998, 서울
- 4) 김정희외, 교학연구사(주), 2003, 서울
- 5) 김정희 외저,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2003, 서울
- 6) 김춘일저, 중등미술교육론, 교육과학사, 2002, 서울
- 7) 노부자외, 지학사(주), 2003, 서울
- 8) 서석례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서울
- 9) 홍명섭외, 삶과 꿈, 2003, 서울
- 10) Eisner, E. W., Educating artistic vision, Mcmillan Co., 1972, NY